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CNBC: 미 연준 선호 물가 지표 둔화… 8월 근원 PCE 3.0%로, 예상 아래로
- Bloomberg: 미 8월 소비 지출, 1년 만에 최대 증가
- Bloomberg: 9월 미 민간 고용 9만 명 증가… 전망 상회
- Bloomberg: 미 지표 둔화로 10월 연준 금리 인상 전망 주춤
- YahooFinance:미 2분기 GDP 성장률 2.2%로 상향… 소비·투자 호조 영향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물가 안정에 금리 인상 기대 약화… 증시 반등

[미국 생활]
- USAToday: 미 고령층 노동 참여 줄어…증시 호황으로 조기 퇴직

[인공 지능]
- Bloomberg: 트럼프, AI 안전 규제에 전향적… 외부 점검 지지
- Bloomberg: 도어대시, 애플 메시지 연동 '문자 주문' AI 에이전트 공개

[트럼프 행정부
- YahooFinance: 트럼프의 301조 강제 노동 관세, 대법원 심리 진행

[주택]
- Bloomberg: 미 30년 모기자 금리 7.3%로 상승… 3년 만에 최고치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CNBC: 연말 쇼핑 매출 첫 1조 달러 전망… 물가 상승이 실적 견인

[KMI 공급망 브리핑]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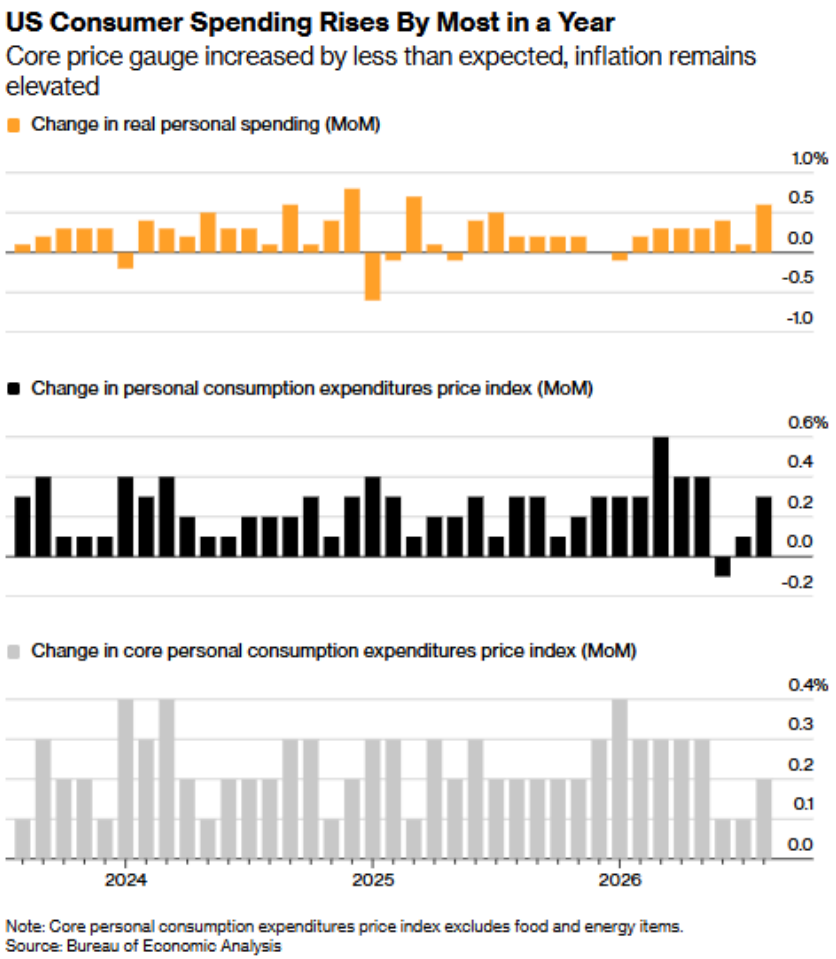
CNBC: Fed’s preferred gauge showed core inflation at 3.0% in August, much lighter than expected
미 연준 선호 물가 지표 둔화… 8월 근원 PCE 3.0%로, 예상 아래로

-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며 둔화세를 나타냈다.
- 연방 상무부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8월 개인소비지출(PCE) 가격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.4%, 특히 근원 PCE 지수는 3.0% 올랐다.
- 두 지표 모두 시장 전망 아래였다. 물가 완화 신호에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으나, 12월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다.

기사

Bloomberg: US Consumer Spending Rises Most in a Year, Core PCE Up 0.2%
미 8월 소비 지출, 1년 만에 최대 증가

-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미 소비 지출이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.
- 연방 제분석국(BEA)에 따르면 8월 실질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.6% 증가했다. 이는 2025년 3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증가 폭이다.
- 연준이 주목하는 8월 근원 개인소비지출(PCE)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는 위에서 보도된 것처럼 3.0%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 0.2% 올라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.



기사

Bloomberg: US Companies Added 90,000 Jobs in September, ADP Data Show
9월 미 민간 고용 9만 명 증가… 전망 상회

- 미국 기업 채용이 늘며 경기 회복 신호를 보였다.
- 9월 민간 고용은 9만 명 증가해 3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하며 전망치(7만 5천 명)를 상회했다. 특히 교육·보건 분야가 증가세를 이끌었고, 레저·건설·제조업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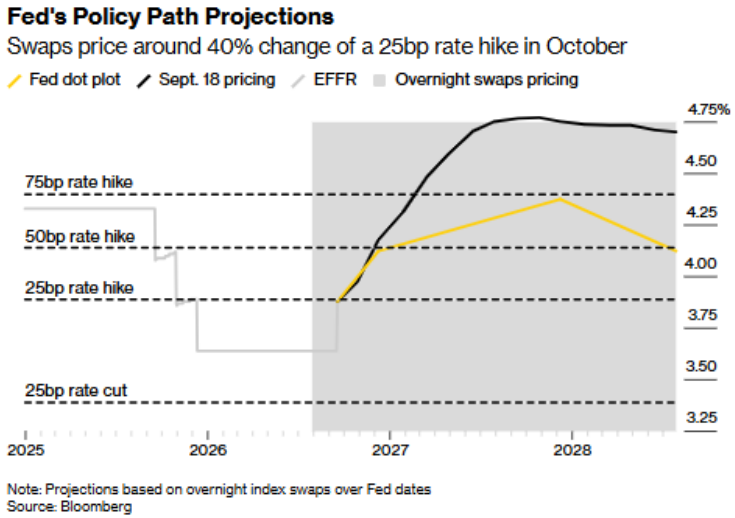
호조를 보였다.

- 견조한 고용과 소비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 연준은 물가 대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. 연준은 2주 전 금리를 인상했으며, 노동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.

기사

Bloomberg: Traders Pull Back on October Fed Hike Bets After Cool PCE Data
미 지표 둔화로 10월 연준 금리 인상 전망 주춤

-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예상 밑으로 나타나면서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.
- 금리 스왑 시장은 한 달 뒤 금리 인상 확률을 발표 전 약 50%에서 36%로 낮췄다. 국채 가격이 오르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약 5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.83%를 기록했다.
- 이달 초 금리 인상 이후 물가 지표가 완화되면서 추가 인상 우려가 일부 해소된 것이다.



기사

YahooFinance: US economy grew a solid 2.2% in the second quarter, government says, upgrading previous estimate
미 2분기 GDP 성장률 2.2%로 상향… 소비·투자 호조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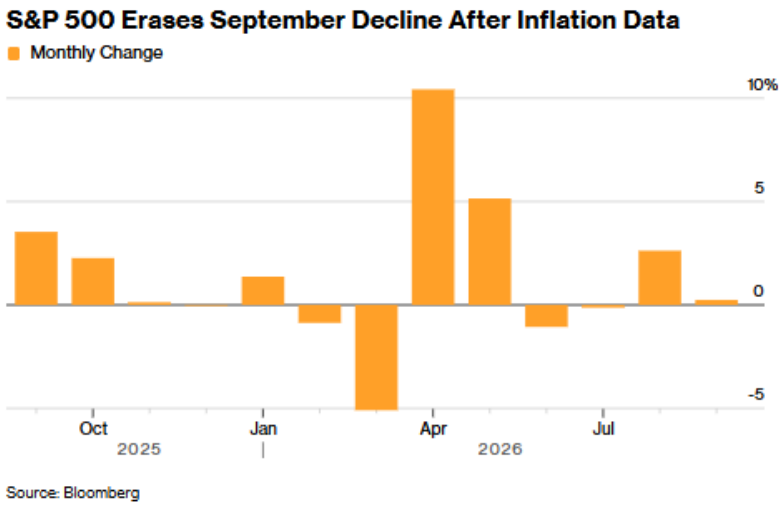
- 연방 상무부는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 확정치가 연율 2.2%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.
- 이는 지난 1분기(2.5%) 대비로는 다소 둔화했으나, 당초 발표되었던 잠정치(1.5%)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. 시장에서는 성장률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았으나 예상을 깨고 상향 조정됐다.
- 경제 활동의 약 70%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1분기 0.7%에서 2분기 3.8%로 큰 폭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다. 인공지능(AI) 기대감에 따른 증시 호황이 자산 효과를 불러일으켜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Stocks Rise as Inflation Surprise Curbs Fed Bets
물가 안정에 금리 인상 기대 약화… 증시 반등

- 미국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둔화하자 연준의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증시는 오르고 단기 국채 금리는 내렸다.
- S&P 500은 0.5%, 그리고 나스닥은 1% 가까이 상승중이다.
- 증시 반등으로 S&P500 지수는 9월 하락 수치를 회복했다.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4.86%로 0.02% 떨어졌으며, 시장의 10월 금리 인상 전망도 40% 미만으로 떨어졌다. 달러화는 소폭 하락했으나 6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.



기사

[미국 생활]

USAToday: Fewer older Americans are working. Here's one likely reason
미 고령층 노동 참여 줄어…증시 호황으로 조기 퇴직

- 1990년대 이후 증가하던 미국 고령층의 노동 참여율이 최근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.
-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참여율은 2022년 2월 39.2%에서 2026년 7월 36.9%로 떨어졌다.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증시 호황에 따른 은퇴 자산 증가가 조기 퇴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.
- S&P500 지수가 2020년 저점 대비 3배 이상 급등함에 따라 401(k) 자산이 늘어난 고령층이 일터를 떠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.

기사

[인공 지능]

Bloomberg: Trump Backs Independent AI Audits in Shift of Safety Posture
트럼프, AI 안전 규제에 전향적… 외부 점검 지지

- 트럼프가 실리콘밸리 빅테크 대표들과 손잡고, AI가 안전한지 외부 전문 기관이 직접 점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나섰다.
- 강제성은 없는 자율 협약이지만, 참여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업계 공동의 안전 기준을 만들고 사이버 공격 같은 위험에 대비해 자체 방어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.
- 또한 그는 기업에 4단계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고하며, 향후 이 지침을 실제 법이나 규제로 만들어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기사

Bloomberg: DoorDash Debuts Text-to-Order AI Agent That Works in Apple Messages
도어대시, 애플 메시지 연동 '문자 주문' AI 에이전트 공개

- 도어대시(DoorDash)가 애플의 '메시지(Messages)' 앱 내에서 문자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선보였다.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도어대시 앱을 직접 켜지 않고도 텍스트 명령만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.
- 도어대시는 전화번호와 사용자 프로필을 연동하고 저장된 결제 수단으로 결제까지 진행하는 이 신규 서비스의 미국 이용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.
- 아울러 도어대시는 치폴레 등 주요 외식 브랜드와 함께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자체 배달 드론 운항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.

기사

[트럼프 관세]

YahooFinance: Trump's tariffs are back in court
트럼프의 301조 강제 노동 관세, 대법원 심리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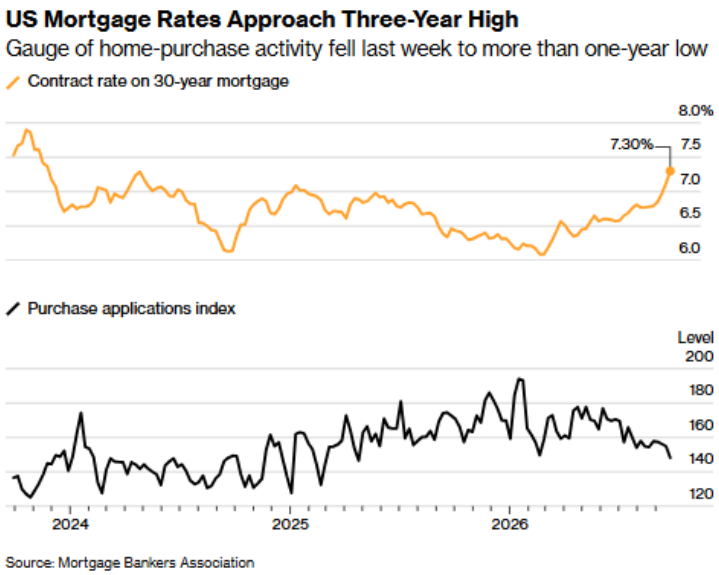
-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하게 부과한 전 세계 관세 조치가 다시 법원으로 가게 됐다.
- 연방 국제무역법원(CIT) 재판부는 대통령이 1974년 제정된 301조 무역법을 근거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심리를 진행한다. 트럼프 정부는 강제 노동 문제를 이유로 7월 말부터 중국, 인도, 일본 등 80개국 수입품에 10~12.5%의 관세를 적용 중이다.
-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정부가 법령(Section 301)을 악용해 전 세계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.
-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이전 10% 일률 관세에 대해 권한 오남용 판결을 내려 1천6백80억 달러의 관세 환급 조치를 명령했다.

기사

[주택]

Bloomberg: US Mortgage Rates Rise to an Almost Three-Year High of 7.3%
미 30년 모기자 금리 7.3%로 상승… 3년 만에 최고치

-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6주 연속 상승하며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.
-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7.30%로 올랐으며, 5년 변동 모기지 금리 역시 2년 만에 최고치인 6.47%로 급등했다.
- 높아진 대출 이자 부담으로 주택 구매 신청 지수(MBA 지수)가 2025년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주택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.

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]

CNBC: Holiday retail sales are expected to top $1 trillion as inflation boosts growth
연말 쇼핑 매출 첫 1조 달러 전망… 물가 상승이 실적 견인

- 올해 미국 연말 연휴 기간의 소매 매출이 물가 상승 여파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.
- 이번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은 거시경제적 부담으로 가계 재정이 압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소비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.
- 다만, 인플레 영향으로 실질 구매력이 줄어든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한층 더 중시하며 할인 혜택과 저렴한 상품을 집중적으로 찾을 것으로 보인다.

기사

[KMI 공급망 브리핑]

-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한 협상이 분수령을 맞았다. 이란은 해협 재개방 조건을 미국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, 카타르 중재단이 미·이란 간 별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.
- 협상 교착 속에서도 드론 피격으로 중단됐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이 복구되면서 얀부항 원유 선적이 재개됐고, 중동 원유 수출도 평시의 80% 수준까지 회복됐다. 다만 이란은 안보 보장이 없으면 역내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으며, 해협 내 선박이 발사체에 피격당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. 이라크는 봉쇄 우회를 위해 시리아 바니야스항을 통한 휘발유 수입에 나섰다.
- 한편 파나마 운하는 일일 통항 슬롯을 33개로 확대했으나, 호르무즈 사태 여파로 유조선 운임은 807% 급등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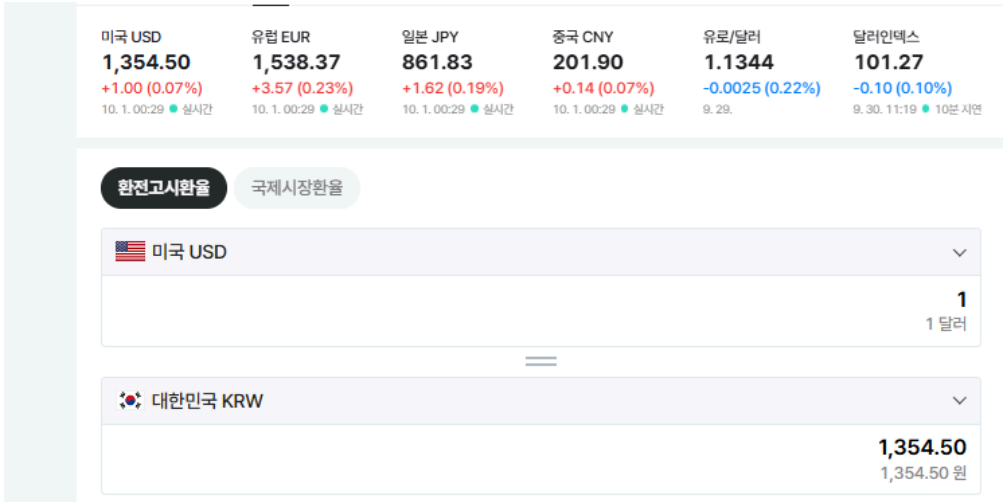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1,382.20	+31.2	+0.06%
US 500	7,714.80	+43.6	+0.57%
Dow Jones	51,343.56	-6.36	-0.01%
S&P 500	7,714.79	+43.60	+0.57%
Nasdaq	27,052.13	+254.59	+0.95%
S&P 500 VIX	15.88	-0.16	-1.00%
Dollar Index	101.028	-0.088	-0.09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-30/32	5.631	0.060
10-Year Note	4.625	-2/32	5.278	0.029
7-Year Note	5	-23/32	5.176	0.030
5-Year Note	5	-1/32	5.072	0.017
3-Year Note	4.375	0/32	4.979	-0.004
2-Year Note	4.75	0/32	4.879	-0.004
1-Year Bill	0	1/32	4.534	0.069
6-Month Bill	0	-1/32	4.335	-0.037
3-Month Bill	0	-1/32	4.138	-0.026
1-Month Bill	0	0/32	3.935	0.000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